

태국 UTCC(University of Thai Chamber of Commerce) 체험수기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여름 계절학기에 태국 UTCC 대학으로 파견 (7.8~8.8) 을 다녀온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태국 UTCC 대학으로 계절학기 파견을 준비하시거나, 파견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UTCC 대학에서는 ASEAN Environment 과목 수업을 듣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2명이셨고, 이외에도 다른 2분의 강사분이 방문하셔서 강의를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수업은 주로 오전 9시-12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을 여유 있게 꼭 챙겨주셨습니다. 수업은 한국에서 같이 출발한 15명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험은 한 번 보았고, 가벼운 퀴즈 30문제를 오픈북으로 봤습니다. 교수님과의 소통은 페이스북과 라인앱을 사용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주로 수업자료와 수업 공지사항을 올려주셨습니다. 라인앱을 통해서도 다음 날 투어 일정과 사진 등을 공유했습니다.

UTCC에 방문한 충남대 학생들만 수업을 듣기 때문에 UTCC 대학 내의 재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UTCC 재학생 분들 중에서 도우미(Buddy)로 지원한 친구들과 태국 현지 투어를 함께 하고, 정해진 일정 이외에도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이외의 일정인 날에는 태국 현지 투어를 하거나, 태국 문화 체험을 합니다. 태국 문화 체험은 주로 수업이 있는 날에 수업을 마치고 학교 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체험 내용으로는 태국 전통 음식 만들기, 태국 전통 의상 입기 등이 있었습니다. 태국 현지 투어는 아유타야, 왓아룬, 태국 중앙은행, 놀이공원 등을 방문합니다. 방문 시에는 UTCC 대학 도우미 친구들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기숙사는 UTCC 대학에서 택시로 약 7분, 오토바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Prom Ratchada Hotel'입니다. 2인 1실을 사용하며, 호텔에서 조식을 제공해줍니다. 처음 호텔에 체크인하면 각 방마다 1000바트를 보증금으로 맡깁니다. 호텔 근처에는 'Ratchada' 야시장, Big C마트(태국 대형 마트), 음식점, 세탁소 등이 걸어서 2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세탁소와 관련해서 호텔 내에도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습니다. 호텔 내 세탁기 이용요금은 40바트, 건조기는 60바트 였습니다. 호텔에서 약간 걸어서 나가면 사설업체 세탁기, 건조기가 있습니다. 사설업체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료는 각각 40바트 였습니다. 전기 플러그는 호텔 뿐아니라, 학내에서도 한국에서 쓰던 충전기 그대로 사용 가능하여 전압 변환기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름 계절학기에 방문했을 때 태국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 중 우기였습니다. 겨울학기

에 방문하게 될 경우 건기가 된다고 합니다. 건기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건기와 달리 우기는 비가 와서 방콕 도시의 공기가 맑은 편이라고 합니다. 태국에는 개인 교통수단, 특히 오토바이 수가 정말 많고, 길거리 음식도 불을 사용하는 요리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가끔 저도 공기가 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럴 때 비가 잠시 오고 나면 공기가 맑아지곤 했습니다. 태국의 비는 한국의 장마와는 다르게 하루 종일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때면 한 시간 정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기다리면 금세 비가 그쳤습니다.

태국에서 약 3주간 영어로 수업을 듣고, 태국 현지인들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태국의 교통수단, 음식, 문화,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찾아보기 힘든 태국의 오토바이 택시는 정말 편리하고 재밌었습니다.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 한복판에서도 요리조리 길을 만들며 가시던 오토바이 기사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의 음식 중에는 팟타이, 푸팟퐁 커리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았던 음식이었습니다. 태국은 고수를 식재료로 많이 사용하는데, 고수를 원하지 않으시면 음식을 주문하시기 전에 “마이 싸이 팍치”라고 말씀하시면 음식에서 고수를 빼주십니다. 충남대학교 재학 중에 태국 UTCC 대학에 파견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녀오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